

이사의 겸임이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정우성

부산외국어대학교 스마트자산경영학과 교수

The effect of Multiple Positions in the Board on the Quality of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Woo-Sung Jung

Professor, Department of Smart Asset Management,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이사가 여러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을 위해 2014-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9,343개의 KOSPI&KOSDAQ기업-연도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기업 내 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는 역할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겸임하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가 많을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즈니스 가설에 의해 이사직 겸임으로 더욱 바빠진 이사가 그들의 업무에 충분한 노력을 투입하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내부회계관리제도, 이사직 겸임, 비즈니스가설, 대리문제, 기업지배구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concurrent appointment as a director on the quality of the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IACS). For analysis, 9,343 KOSPI & KOSDAQ company-year data from 2014-2019, excluding the financial industry,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quality of IACS decreased as the number of multiple positions in the director increased. Al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roles of inside and outside directors,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IACS decreases equally as the number of board members. According to the business hypothesis, this can be said to be the result of the agency problem within the company because directors, who were more busy with concurrent positions as directors, did not put sufficient effort into their work. This study suggests that information on the concurrent position of directors can be a new indicator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the board in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corporate governance.

Key Words :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Multiple position in the Board, Business hypothesis, Agency problem, Corporate governa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21.

*Corresponding Author : Woo-Sung Jung(wsjung@bufs.ac.kr)

Received December 9, 2021

Revised January 5, 2022

Accepted January 20, 2022

Published January 28, 2022

1. 서론

재무제표의 오류 및 기업의 비리·부정을 예방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내부회계관리제도(IACS)는 2005년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의해 시행되어 감사인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오다 잇따른 회계부정에 그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어 현재는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 형태로 변모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에서 순차적으로 '검토의견'이 아닌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며, 2023년부터는 전체 상장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1].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구축·운영되기 위해 우수한 기업지배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중 경영자를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사회와 이사회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이사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이사회 규모 및 독립성을 갖출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만큼 규모와 독립성은 중요한 요소이다[2]. 그러나 이와 같은 이사회 특성에 대한 효과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사회 규모가 크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경영활동에 활용할 수 있으나[3], 규모가 적정수준을 넘어서면 의사결정이 지연되거나 위협에 대해 감수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영효율성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4]. 이사회와 독립성을 반영하는 사외이사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목적이 이사회와 독립성을 강화하고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대주주와 경영자를 감시하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에도 지배주주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선임·해임하는 기업여건 상, 사외이사가 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사외이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외이사를 일정 수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는 실정이다[5].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검증된 사외이사를 확보하려는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사외이사 1명이 여러 개의 기업에서 이사로 활동하게 되는 이사직 겸임 현상을 가져왔다[5]. 또한 선행연구에서 이러한 이사직 겸임이 이사회 기능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사회 기능에 비판적 논의를 제기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실효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고자 했던 선행연구결과를 확장하여[6], 이사회 기능을 평가하는 새로운 지표로 이사직 겸임 정보를 사용하여 IACS의 품질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기업지배구조

내부회계관리제도(IACS)는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으로서 회사의 이사회, 경영진 등 모든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1]

IACS모범규준에서는 IACS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업지배구조 각 구성원의 역할을 무엇보다 강조하며, 기업의 경영자에게 효과적인 IACS의 설계·운영에 대해 궁극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운영을 담당하는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현황을 이사회와 감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사회는 경영자가 운영하는 IACS를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사는 경영자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IACS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여 제도를 적절히 운영·개선하는데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3]. 이에 따라 IACS에 대해 운영책임을 지고 있는 경영자는 내부통제제도의 효율성 여부를 평가하여 IACS에 취약점이 존재하면 매년도말에 발행되는 「운영실태보고서」에 이를 공시하며, 감사인은 IACS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책임이 부여되어 감사보고서에 IACS검토보고서를 첨부한다. 이에 감사인은 IACS의 운영상 취약점이 존재하면 검토보고서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며, 취약점이 존재하지 않으면 발견되지 않았음을 기재하고 있다.

IACS모범규준에서 언급한 기업지배구조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가 IACS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

Krishnan(2005)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재무전문성이 있는 기업일수록 내부통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7]. Hoitash et al.(2008)

1)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문단8(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2005)

은 회계 및 재무전문성이 있는 감사위원이 포함된 경우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하였다[8].

국내연구에서 김용식의(2007)는 외국인투자자와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IACS의 취약점 보고 확률이 낮아지고, 경영자 지분율은 U자형 비선형 형태로 일정 수준까지는 지분율이 증가하면 취약점 보고 확률이 낮아지나 그 수준을 넘어서면 취약점 보고 확률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독립성을 의미하는 사외이사비율과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9]. 또한 김용식의(2008)는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강제규정으로 단순한 사외이사 비율만으로는 지배구조의 특성을 결정하기 어려움을 제시하며, 실질적인 운영상의 효과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외이사 활동성과 재무전문성, 이사회 주식소유비율, 감사위원회 활동성이 높을수록 취약점 보고 확률이 낮아짐을 보고하였으나 이사회 독립성의 잣대인 사외이사비율은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6]. 더하여 지배주주와 대표이사가 일치하는 오너경영기업일수록 취약점 보고 확률이 낮아지며, 이사회 특성과 관련해서는 사외이사의 재무전문성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취약점보고 확률은 낮아졌다. 그러나 이사회 규모는 증가할수록 취약점 보고 확률이 오히려 높아짐을 보고하였으며, 사외이사비율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3]. 이준일의(2011)는 이사회 규모와 감사위원회 보유 여부가 IACS 담당인력의 수를 증가시킴을 확인함으로써 지배구조가 내부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10]. 여영준의(2018)는 경영자 능력과 내부통제품질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경영자의 능력이 높을수록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낮음을 제시하였다[11]. 광지영의(2016)는 코스닥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점수를 활용하여 IACS의 취약점 보고와의 관련성을 검증한 결과, 전반적인 지배구조점수가 높을수록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낮아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배구조점수를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내부감사기구, 경영과실배분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주주권리보호, 공시, 경영과실배분 수준이 높을수록 취약점보고가능성은 감소하나, 이사회점수는 높을수록 취약점보고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져 이사회의 실질적인 감시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2]. 김용식의(2015)는 최대주주 및 외부감사인 변경이 IACS의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최대주주가 변경되지 않은 기업에서 취약점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최대주주의 연속성이 유지되는 기업에서 대주주 지분율이 증가하면 IACS의 취약점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을 하향 교체한 기업에서 취약점이 개선되며, 이에대해 취약점 재공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구매(opinion shopping)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3]. 상기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업지배구조가 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이사회 특성은 단순한 이사회 규모나 사외이사비율만으로는 IACS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2.2 겸임이사

겸임이사(Interlocking Directorates)란 기업의 이사가 하나 이상의 여러 기업의 이사회에 엮갈려 속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미국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로 다른 기업의 전·현직 CEO를 영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른 기업의 현직 CEO를 참여시키는 경우, 그 CEO는 이미 자신의 기업 내 이사회에서 사내이사로 활동하고 있을 것이므로 두 회사의 이사회에 속하게 된다. 다른 기업의 CEO를 이사회에 영입하는 것은 보통 기업이 자체의 힘으로 획득하기 힘든 정보를 교환할 목적이 경우가 많으며,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인 경우 시장에서 안정적인 관계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상법 제397조에서는 이사의 겸임금지규정으로 이사회 승인이 없는 기업의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15]. 그러나 상법에서는 겸직의 가부를 이사회 승인에 일임하고 있어 이사회 승인이 있으면 동종업계 이사로 취임할 수 있으며, 영업 범위를 동종영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사회 승인이 없다 하더라도 동종영업이 아니면 이사로 취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16].

겸임이사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이사직 겸임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으며, 두 가지 대립가설인 평판가설(reputation hypothesis)과 비즈니스가설(business hypothesis)로 구분하여 관련성을 설명하고 있다. 평판가설(reputation hypothesis)에서는 이사직 겸임이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켜 이사의 정보력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에 보다는 나은 조언과 모니터링이 제공되므로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다[17]. 반면에 비즈니스가설(bus

iness hypothesis)에서는 경영자를 감시·감독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하는 이사가 이사직 겸임으로 모니터링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게 되므로, 부족한 경영통찰력이 기업 내 대리문제를 증가시키고 불필요한 기업 다각화를 허용하여 기업 가치가 훼손됨을 주장한다[18].

3. 연구설계

3.1 가설설정

선행연구에서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를 가진 기업일수록 IACS의 취약점을 보고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제시하고 있다[10]. 기업의 한정된 자원을 IAC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데 투자할 것인지의 여부는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기에, 경영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닌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감시·통제하는 우수한 기업지배구조는 효과적인 IACS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조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중 이사회는 경영자를 감시·통제하는 도구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19]. 주주를 대신해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모니터링하여 기업의 경영실패를 예방하고 경영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며 독립적으로 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기업성적을 평가한다[20]. 따라서 이사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면 경영자가 IACS에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효율적 통제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가설(business hypothesis)에 따라 이사직 겸임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경영자의 행위를 모니터링 해야 하는 이사가 여러 기업에서 다수의 이사 업무를 수행하느라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면 기업 내 대리문제가 증가하여 IACS가 효과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반해 평판가설(reputation hypothesis)에 따라 다수의 이사직 겸임이 풍부한 경험으로 이어져 개인의 정보력을 증가시키고 이를 충분히 발휘하여 기업에 보다 나은 경영의사결정과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제공한다면 IACS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법에서는 이사회원의 일원으로 기업 내 상근하며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사내이사로, 기업의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독립성 저해와 같은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사외이사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기업 경영상 내부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사내이사와 기업 외부에서 활동하며 경영자나 최대주주와 독립적인 위치에서 이들을 견제하며 감독하는 사외이사는 수행하는 역할에서부터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겸임여부를 구분하여 분석하기도 하였다[5]. 따라서 사내이사이면서 이사직을 겸임하는 경우와 사외이사이면서 이사직을 겸임하는 경우 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 수도 있고,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이사직 겸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이사회 구성 형태에 따른 이사직 겸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주요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연구모형

3.2.1 이사직 겸임

본 연구에서는 2개 이상의 기업에서 등기이사로 임명받아 이사직을 겸임하는 자를 겸임이사로 정의한다.[5] 또한 이사회 구성형태에 따른 이사직 겸임이 IACS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사내이사의 이사직 겸임과 사외이사의 이사직 겸임을 구분한다. 주된 설명변수인 MB는 전체 이사 중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이사의 수이며, IN과 OUT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사내이사의 수와 사외이사의 수이다.

3.2.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품질

IACS 품질을 IACS의 취약점 보고여부로 정의한 후, 「IACS 검토보고서」에 취약점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부여하였다. 단, 경영자가 「운영실태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검토의견표명이 거절된 기업의 경우, IACS의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일 수 있으므로 이들 기업 역시 취약점 존재기업으로 분류하였다[21].

3.2.3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된 연구모형은

2) 신현걸(2007)은 취약점이 여러 개 존재하는 기업의 경우 검토보고서에 굳이 여러 개의 취약점이 공시되는 것보다 감사인에게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검토의견표명이 거절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검토의견표명이 거절된 기업을 취약점이 존재하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다음과 같다.

$$MW = \alpha_0 + \alpha_1 MB + \alpha_2 SIZE + \alpha_3 LEV + \alpha_4 OTR \quad \langle \text{식1} \rangle$$

$$+ \alpha_5 BIG4 + \alpha_6 BDS + \alpha_7 BDI + \alpha_8 CEO$$

$$+ \alpha_9 FOR + \alpha_{10} LAR + \alpha_{11} MKT + ID + YD + \epsilon$$

$$MW = \beta_0 + \beta_1 IN + \beta_2 SIZE + \beta_3 LEV + \beta_4 OTR \quad \langle \text{식2} \rangle$$

$$+ \beta_5 BIG4 + \beta_6 BDS + \beta_7 BDI + \beta_8 CEO$$

$$+ \beta_9 FOR + \beta_{10} LAR + \beta_{11} MKT + ID + YD + \epsilon$$

$$MW = \gamma_0 + \gamma_1 OUT + \gamma_2 SIZE + \gamma_3 LEV + \gamma_4 OTR \quad \langle \text{식3} \rangle$$

$$+ \gamma_5 BIG4 + \gamma_6 BDS + \gamma_7 BDI + \gamma_8 CEO$$

$$+ \gamma_9 FOR + \gamma_{10} LAR + \gamma_{11} MKT + ID + YD + \epsilon$$

MW: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기업이면 1, 아니면 0, MB: 겸임 이사의 수, IN: 겸임 사내이사의 수, OUT: 겸임 사외이사의 수, SIZE: 기업규모=LN(총자산), LEV: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OTR: 수익성=영업이익/매출액, BIG4: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BDS: 이사회 규모=ln(등기이사 수), BDI: 사외이사 비율, CEO: 경영자지분율, FOR: 외국인지분율, LAR: 최대주주지분율, MKT: 코스닥 상장기업이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지는 더미변수

〈식1〉은 [H1]을 〈식2〉와 〈식3〉은 [H2]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사직 겸임과 IACS의 품질 사이의 관련성이 평판가설(reputation hypothesis)을 따른다면, 이사직을 겸임하는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겸임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정보력으로 효율적인 경영의사결정과 모니터링이 제공되어 IACS의 품질은 좋아질 것이므로 $\alpha_1, \beta_1, \gamma_1$ 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비즈니스가설(business hypothesis)을 따른다면, 다수의 기업에서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느라 업무에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못하게 되어 IACS의 품질은 낮아질 것이므로 $\alpha_1, \beta_1, \gamma_1$ 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IACS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되는 기업규모와 부채비율, 매출액영업이익률로 측정되는 수익성과 같은 경제적 특성변수와, 대형회계법인 감사여부, 회계법인 감사여부, 이사회 규모와 독립성, 경영자지분율, 외국인지분율, 최대주주지분율과 같은 기업지배구조 특성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3.3 표본선정 및 자료수집

표본은 2014년-2019년까지 금융업을 제외한 12월 결산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추출한 후, IACS와 겸임이사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재무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기업들로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투입된 표본은 총 9,353개의 기업-연도자료이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재무

자료는 TS2000과 FnGuide를 이용하였고, IACS와 겸임이사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통해 손수 수집하였다.

4. 실증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과 상관관계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	Min	Max	Mean	Median
MW	0	1	0.02	0
MB	0	12	1.17	0
IN	0	10	0.69	0
OUT	0	7	0.47	0
SIZE	16.45	24.56	19.24	18.95
LEV	0.04	0.95	0.42	0.42
OTR	-2.81	0.76	0.01	0.04
BIG4	0	1	0.46	0
BDS	0.00	2.99	1.62	1.61
BDI	0.00	0.90	0.34	0.33
CEO	0.00	0.92	0.13	0.06
FOR	0.00	0.61	0.07	0.03
LAR	0.02	0.83	0.39	0.39
MKT	0	1	0.60	1

변수들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하고자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IACS의 취약점 보고여부의 평균은 0.02로 취약점 보고기업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IACS가 본연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결과임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일치한다[22]. 주된 설명변수인 전체이사 중 이사직을 겸임하는 이사의 수는 평균 1.17명이며, 사내이사의 겸임 수와 사외이사의 겸임 수를 비교했을 때 사내이사 겸임 수의 평균이 0.69, 사외이사 겸임 수의 평균이 0.47로 사내이사가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더 높은 비율로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2. the results of T-test

Var	MW=1 (N=146)	MW=0 (N=9207)	T-value
MB	0.58	0.43	3.68***
IN	0.50	0.32	4.27***
OUT	0.38	0.29	2.26**
SIZE	18.72	19.25	-4.273***
LEV	0.63	0.42	10.57***
OTR	-0.27	0.02	-5.70***
BIG4	0.53	0.46	1.68*
BDS	1.72	1.62	3.42***
BDI	0.34	0.33	0.66
CEO	0.06	0.13	-7.21***
FOR	0.04	0.07	-5.73***
LAR	0.28	0.40	-7.31***
MKT	0.69	0.60	2.29**

Table 2는 IACS의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과 보고하지 않는 기업의 변수들 간 평균값에 대한 T-test 결과이다. 취약점을 보고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서 MB의 평균은 각각 0.58과 0.43, IN의 평균은 0.50과 0.32, OUT의 평균은 0.38과 0.29로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의 평균값이 유의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Table 3는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주요 설명변수인 전체 이사 중 겸임이사 수(MB)와 겸임 사내이사 수(IN)는 1%수준에서, 겸임 사외이사 수(OUT)는 5%수준에서 IACS의 취약점 보고여부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경제적 특성변수인 기업규모와 수익성은 클수록 취약점 보고 수는 적어지는 음(-)의 관련성이, 부채비율은 클수록 취약점보고 수가 많아지는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지배구조 관련변수는 경영자와 외국인, 최대주주지분율이 높을수록 취약점 보고 수는 감소하는 음(-)의 관련성이, 이사회 규모와는 양(+)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있다. 변수 간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변수들이 일부 존재하고 있어 분산확대인자(VIF)를 수행하였는데 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 문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Table 3. Correlation matrix

V	MW	MB	IN	OUT	SIZE	LEV	OTR	BIG4	BDS	BDI	CEO	FOR	LAR	MKT
MW	1													
MB	0.05 ***	1												
IN	0.05 ***	0.89 ***	1											
OUT	0.03 **	0.77 ***	0.40 ***	1										
SIZE	-0.05 ***	0.12 ***	-0.02 **	0.28 ***	1									
LEV	0.10 ***	0.04 ***	0.01 **	0.07 ***	0.27 ***	1								
OTR	-0.08 ***	-0.00 **	-0.02 **	0.03 **	0.24 ***	-0.04 ***	1							
BIG4	0.00 **	0.10 ***	0.03 ***	0.15 ***	0.43 ***	0.09 ***	0.11 ***	1						
BDS	0.03 **	0.35 ***	0.25 ***	0.34 ***	0.37 ***	0.09 ***	0.00 **	0.19 ***	1					
BDI	0.00 **	0.11 ***	-0.07 ***	0.31 ***	0.45 ***	0.13 ***	0.10 ***	0.20 ***	0.35 ***	1				
CEO	-0.05 ***	-0.15 ***	-0.12 ***	-0.15 ***	-0.14 ***	-0.17 ***	0.07 ***	-0.15 ***	-0.21 ***	-0.13 ***	1			
FOR	-0.03 ***	0.10 ***	0.02 **	0.16 ***	0.47 ***	-0.08 ***	0.14 ***	0.27 ***	0.27 ***	0.22 ***	-0.14 ***	1		
LAR	-0.08 ***	-0.04 ***	-0.05 ***	-0.00 **	0.20 ***	-0.09 ***	0.20 ***	0.18 ***	-0.04 ***	0.08 ***	0.19 ***	-0.21 **	1	
MKT	0.03 ***	-0.05 ***	0.04 ***	-0.14 ***	-0.55 ***	-0.16 ***	-0.13 ***	-0.29 ***	-0.24 ***	-0.29 ***	0.15 ***	-0.23 ***	-0.21 ***	1

4.2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가설검증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전체 이사 중 다른 기업의 이사를 겸하고 있는 겸임이사 수(MB)의 계수는 0.10, 겸임 사내이사 수(IN)의 계수는 0.12로 각각 5%수준에서, 겸임 사외이사 수(OUT)의 계수는 0.17로 10%수준에서 유의확률은 다소 낮아졌지만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이 나타났다. 이는 사내이사이든 사외이사이든 다른 기업의 이사직을 겸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IACS의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품질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즈니스가설(business hypothesis)에 의해 다수의 이사직 겸임으로 바빠진 이사들이 업무

수행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지 못한 것이 기업 내 대리문제로 이어져 IACS의 품질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기타 지배구조변수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경영자지분율(CEO)과 최대주주지분율(LAR)이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값이 나타나 IACS의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사회 규모(BDS)와 독립성을 반영하는 사외이사비율(BDI)은 관련성을 제시하지 못하거나, 양(+)의 관련성이 나타나, 이사회 규모나 독립성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취약점 보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가 사외이사를 선임·해고하는 국내 기업환경의 특성상, 이사회 효율성을 나타내는 이사회 규모나 사외이사제도가

Table 4. the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for testing H2

	1			2			3		
	Coef		wald	Coef		wald	Coef		wald
MB	0.10		4.85 **						
IN				0.12		4.06 **			
OUT							0.17	2.94	*
SIZE	-0.36	17.03	***	-0.36	16.40	***	-0.37	18.05	***
LEV	5.00	110.05	***	4.99	110.34	***	5.01	110.93	***
OTR	-0.90	35.80	***	-0.90	35.89	***	-0.90	35.66	***
BIG4	0.84	18.09	***	0.84	17.96	***	0.84	18.11	***
BDS	0.41	2.20		0.43	2.49		0.53	4.14	**
BDI	1.31	3.83	*	1.49	4.78	**	1.05	2.34	
CEO	-2.83	9.14	***	-2.86	9.32	***	-2.91	9.64	***
FOR	-1.12	0.69		-1.08	0.65		-1.16	0.74	
LAR	-2.48	16.12	***	-2.48	16.15	***	-2.49	16.35	***
MKT	0.22	0.93		0.22	0.93		0.24	1.13	
-2Log Likelihood	1193.64 ***			1194.42 ***			1195.50 ***		
Chi-Square	57.34 ***			57.63 ***			60.58 ***		
Nagelkerke R ²	0.22			0.22			0.22		

경영자를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되기보다 자신의 효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고하며 이사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던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23]. 또한 본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 규모가 크거나 사외이사 비중이 높아 독립성이 비교적 높다 해도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기업의 이사를 많이 겸임함에 따라 경영관리나 모니터링이 소홀해져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이사직 겸임이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겸임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와 IACS의 품질사이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4년-2019년까지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총 9,353개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른 기업의 이사를 겸임하는 이사의 수가 많을수록 IACS의 취약점 보고가능성이 증가되어 IACS의 품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내이사과 사외이사는 역할의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내이사이든 사외이사이든 이사회 구성원이 다른 기업의 이사를 많이 겸임할수록 IACS의 품질은 동일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직 겸임의 효과를 설명하는 두 가지 대립가설 중 비즈니스가설

(business hypothesis)을 따르는 것으로, 여러 기업에서 다수의 이사직을 겸임하느라 더욱 바쁜 이사가 늘어난 업무로 본연의 업무인 경영관리나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 내 대리문제 발생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과 관련하여 국내외 이사회제도를 두고 비판적 논의를 진행해온 선행연구들을 확장하여 이사회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려고 했다는 점에 실무적·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효율성을 평가함에 있어 겸임이사에 관한 정보가 이사회 특성을 반영하는 새로운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재차 확인하였다[15]. 따라서 경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기업지배구조를 운영할 때 이사를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사의 겸임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고려하여 업무의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겸임이사와 관련하여 단순히 겸임하는 이사의 수만 고려하였을 뿐 겸임 이사의 구체적인 배경이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기에 한계점이 될 수 있으며, 향후 변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측정과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REFERENCES

[1]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799>

- [2] B. Xie., W. N. Davidson & P. J. DaDalt. (2003). Earnings management and corporate governance: the role of the Board and the Audit Committee.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9(2), 295-316.
- [3] Y. S. Kim. & K. J. Hwang. (2010).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orporate Governance : Focusing on Ownership and Board of Directors' Characteristics. *Review of Accounting and Policy Studies*, 15(2), 29-67.
- [4] C. S. Kim. (2006). Outside Directors and Firm Value in Korea.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19(2), 105-153.
- [5] K. B. Lee. (2018). The Effect of Multiple Directorships of Outside Directors on Earnings Management. *Tax Accounting Research*, 57, 37-54.
- [6] Y. S. Kim. K. J. Hwang & Y. C. Kim (2008) The Effect of Board of Directors' Characteristics on th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Compensation of Outside Directors.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48, 427-454.
DOI : 10.22781/kicpa.2008..48.427
- [7] J. Krishnan. (2005). Audit Committee Quality and Internal Control: An Empirical Analysis. *The Accounting Review*, 80, 649-675.
- [8] U. Hoitash., R. Hoitash. & J. C. Bedard. (2008). Corporate Governance and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 Comparison of Regulatory Regimes. *Working Paper(Northeastern University and Bentley College)*.
- [9] Y. S. Kim. K. J. Hwang & Y. C. Kim (2007). The Effect of Firm Characteristics and Corporate Governance on the Quality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Study on Accounting Taxation & Auditing*, 46, 249-275.
DOI : 10.22781/kicpa.2007..46.249
- [10] J. I. Lee, H. J. Sonu & J. H. Choi. (2011). The Effect of Corporate Governance o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Korean Accounting Journal*, 20(5), 1-33.
- [11] Y. J. Yeo & C. Y. Ko. (2018) Managerial Ability and Internal Control Quality. *Journal of CEO and Management Studies*, 21(4), 239-257.
- [12] J. Y. Kwak. & M. J. Oh.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Corporate Governance on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s Review Opinion.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8(1), 21-49.
- [13] Y. S. Kim & K. J. Hwang. (2015). The Effect of the Largest Shareholder and Auditor Change on the Remediation of Internal Control Review Opinion. *Korean accounting review*, 40(1), 117-152.
- [14]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177845&cid=51072&categoryId=51072>
- [15] J. H. Park. (2018). *The Effect of Multiple Directorship and Outside Director's Remuneration Ratio on Firm Value and Investment Efficiency*.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Pusan.
- [16] S. H. Lim & Y. S. Park. (2020). Boards Independence according to Outside Director Characteristics and Firm Value: Implications of Boards Composition Reflecting the Legal Standard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5(5), 445-466.
- [17] M. J. Conyon & L. E. Read. (2006). A model of the supply of executives for outside directorships. *Journal of Corporate Finance*, 12(3), 645-659.
- [18] P. Jiraporn, Y. S. Kim & W. N. Davidson. (2008). Multiple Directorships and Corporate Diversification. *Journal of Empirical Finance*, 15(3), 418-435.
- [19] W. S. Jung. (2020). The Impact of Governance Structur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port Types of Weakness in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Executive Compensation.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1(12), 243-251.
DOI : 10.15207/JKCS.2020.11.12.243
- [20] E. F. Fama. & M. C. Jensen. (1983).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Journal of Law & Economics*, 26(2), 301-325.
- [21] H. G. Shin. (2007). Analysis of review reports on Internal Control Systems. *Korean Accounting Journal*, 16(1), 107-128.
- [22] J. B. Kim. (2010). The effect of auditors' economic dependence from non-audit services on review opinion and reporting material weaknesses in Internal Controls, *Korean Accounting Journal*, 19(4), 263-299
- [23] G. S. Crystal. (1991). *In search of excess: the overcompensation of American executives*. New York : W. W. Norton and Company.

정 우 성(Woo-Sung Jung)

[정회원]



- 1990년 2월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 1995년 2월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 1996년 9월 ~ 현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마트자산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세무회계, 자본시장회계, 정부회계, 세무행정
- E-Mail : wsjung@bufs.ac.kr